

국내 대기업들 매각 본격화... M&A 시장 '후끈'

현대건설 내달초 본계약, 대한통운 이달중 매각 공고 대우일렉 4월내 종료... 하이닉스 3~4월 매각방안 확정

설 연휴 이후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작업이 본격화된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다음 달 현대차그룹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대한통운도 이달 중 시장에 정식 매물로 나온다. 하이닉스반도체 매각 작업도 3월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매각에 진통을 겪었던 대우일렉트로닉스는 4월 중에 매각이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차와 3월 초 본계약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17일 이행보증금 2550억원을 납부하고 현재 현대건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50~60명의 실사단을 꾸리고 현대건설의 주요 해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가격 할인 요소를 찾으려고 강도 높은 실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인수 대금은 현대차그룹이 입찰 당시 제시한 5조1000억원에서 실적 결과에 따라 ±3%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현대차그룹은 실사를 통해 최대한 가격을 깎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0일까지 실사를 마치면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은 곧바로 가격 협상이 들어가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채권단은 주주협의회를 열어 주식매매계약(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현대차그룹이 계약금을 지급(인수대금의 10%)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입결합 신고, 독과점 심사 등을 거쳐 4월 중 인수 대금을 완납하면 현대건설 매각은 마무리된다. 현대그룹은 채권단과 맺은 현대건설 인

수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4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대한통운은 이달 중 매각 공고 =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대한통운 매각 작업은 설 연휴 직후부터 본격화한다. 산업은행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주부터 매각 중간자 선정에 나서는 한편 조만간 2~4주가량 소요되는 매도자 실사 작업에 착수기로 했다. 산은은 이르면 이달 중에 매각 공고를 내고 4월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산은과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통운 지분 47.9% 중에서 35% 이상을 매각하기로 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매각 대상 지분 중 35% 이상을 사들인 뒤 대한통운이 보유한 자산주 24%를 소각하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 산은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매각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통운 주가는 지난달 31일 종가로 11만1000원 수준이지만 인수 경쟁이 치열해 매각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포스코(POSCO) [005490]와 롯데그룹, CJ그룹 등의 대기업들도 벌써 인수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대우일렉 매각. 4월로 늦춰질 듯 = 대우일렉 매각 작업은 예정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채권단은 대우일렉 우선협상대상자인 이란계 다국적 기업 엔텍합이 약속된 날자인 지난해 12월 7일까지 투자확약서(LOC)를 내지 못하자 오는 7일까지 인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리를 더 찾았다.

그러나 엔텍합은 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되, 인수대금 지급 이후 대우일렉의 6000만달러 규모의 한도성 여신(유선스) 상황을 6개월 정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계약 종결일(인수대금 지급일)을 두 달 가량 더 연장하고 ▲대우일렉의 한도성 여신 상황을 연장하는 내용의 2가지 안건을 채권금융기관들의

회에 상정해 각 기관의 입장을 받고 있다. 이 안건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57.42%), 외환은행(6.79%), 신한은행(5.75%), 우리은행(5.37%), 서울보증보험(5.23%) 등이다.

◇하이닉스 매각 항배 =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개 주요 주주들은 지난 달 하이닉스 매각 방안 마련에 착수해 이르면 오는 3~4월말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재무적 투자자(FI)를 끌어들이 사모펀드(PFF)를 구성,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방안이나 인수 희망자에게 채권단을 보유 지분 15% 가운데 5%만 팔고 1~2년간 경영을 맡긴 뒤 추가로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소수 지분 매각 및 위탁경영 방식은 채권단이 남은 10% 지분을 보유한 채 하이닉스 경영을 도와주면서 인수자가 일정한 가격에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주는 것이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1분기 실적 전망 낙관적 투자유망 종목 선별 접근

설 연휴로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 1일 미국과 유럽 증시는 이집트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1% 이상 급등했다. 이후 상승탄력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일본증시의 상승폭이 컸다. 일본증시는 연휴기간에 2.6% 넘게 올랐다.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총 55곳으로 개별 기준 44개, 연결기준 11개의 기업이 실적을 공개했다. 이는 전체 12월 결산법인의 10% 선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LG화학 등 대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큰 흐름은 엿볼 수 있다.

4분기 실적만 보면, 예상치를 5% 이상 하회하는 기업 감소 또는 소폭 국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통상 실적 발표치가 부정적이라면 미래 전망치도 이를 반영해서 하향 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다른 원인 우선 지난해 4분기 실적 둔화가 판매·관리비와 1회성 비용 증가에 따른 계절적 또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여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다.

다음으로는 최근 2년간 이어진 주식시장의 강세와 지난해 4분기를 고비로 기업실적이 턱어라운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미래 추정치에 대해 전망이 낙관적으로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큰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에 따른 결과는 시장을 판단하는데 있어 크게 두 가지 의미 있는 전망이 가능하다.

첫째, 2011년 연간으로 볼 때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익이 1분기를 포함해서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이익은 현재 예상 수준보다 미흡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근 이슈화된 밸류에이션 매력에 생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3월 이후에나 구체화될 1분기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에 미리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실적 추정치를 기준으로 보면 1분기 실적에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업종에는 유틸리티(234.8%, 12월 전망치 대비), 에너지(18.1%), 화학(13.8%), 은행(13.6%)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틸리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경기 민감주라는 점에서 지수 조정시, 해당 업종내 투자유망 종목을 선별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종내 이익 성장 종목으로 S-Oil, 케이피케이, 금호석유, OCI, 카프로, 호남석유 등이 가장 돋보인다.

전남농협 농축산물 판매 역대 최고

전남지역 농협의 지난해 농축산물 판매액이 전년보다 16.4% 증가한 2조7000억원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개장하는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연계해 이보다 11% 늘어난 3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6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액은 2조7761억원으로 전년보다 3900억원(16.4%)이 증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작황

부진과 한파,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치는 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이같은 성과는 '산지유통혁신 112운동'을 통해 112개 조합에서 공동선별출하조직 208개를 육성해 1300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햇빛 참다래 광역연합사업' 등 18개 시·군 연합단에서 710억원의 실적을 올리는 등 농협 전남본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마케팅 사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예쁜 소품으로 사랑 전해요

설 연휴가 끝나는 6일 발렌타인 시즌을 맞아, 갤러리아 명품관에서 직원들이 자체 디자인해 제작한 티셔츠(2만 5000원, 300개 한정수량)와 함께 쿠션(1만 9000원), 마우스패드(7000원), 머그컵(9900원)을 발렌타인 소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매출 쑥~ 지역 백화점 설 특수 '톡톡'

광주지역 백화점들은 올해 설 특수를 만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인기 상품인 정육세트가 구제역 여파로 주춤한 대신 청과와 수산물에 큰 사랑을 받았다. 6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 설 매출은 7~1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설 매출이 지난해보다 13% 신장됐다. 상품권 판매 실적도 20% 늘었다.

품목별로는 설 인기 상품 1위였던 정육 세트가 구제역 여파로 크게 줄어든 대신 청과 선물세트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어 수산 세트가 25%, 가

공·건강 12%, 정육 7%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는 이번 설(1월17일~2월2일)에 매출이 7% 신장됐다.

광주신세계도 구제역 영향으로 한우선물세트 매출이 전년에 비해 6% 가량 줄어든 반면 굴비가 30% 증가하는 등 수산물이 인기를 끌었다. 또 육포(16%), 와인(15%)도 두자리수 매출 증대를 보였다.

상품권 판매도 전년보다 6% 증가했다. 이는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농산물 세트보다는 상품권으로 설 선물을 대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배송 건수도 전년보다 5% 가량 늘어난 2만3000여건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光銀 '맞벌이 부부론' 출시

장기근속 직장인 금리우대

광주은행은 7일부터 맞벌이 부부 고객들에 대한 신용대출 특화상품인 'KJB 부부론'을 판매한다.

부부론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은행 대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을 기본 대출한도로 하고 있다. 은행거래 실적과 리더스클럽 회원 가입, 소호명가 선정 기업 임직원 여부에 따라 추가 한도 4000만원을 포함해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자녀가 5세 이하이거나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장인일 경우, 이 대출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경우는 최고 1.0%포인트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신용대출임에도 상품출시일 기준 최저 6.31%까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신용 한도까지 포함해 대출한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특허방수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시트방수**

2중단열방수 | 절연방식시공 | 내구성탁월 | 전천후시공성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1.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2.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3.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태양열차단 60%이상 | 방기차단 90%이상

여름철 실내온도 3~5°C |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 난방비 15~20%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 순천대리점 (061) 726-0482
대리점 010-6603-0405 |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현영

초슬림!!

스킬과 맘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격 파괴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주소: 남구주월동 50m
대산프리모가발